

★

때 아닌 폭설로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걸히는 사태가 벌어진 지 며칠 후였다. 바위처럼 길을 막고 있던 눈들은 그제야 '눈 녹듯' 녹았고, 세상은 언제 그렇지 않은 적 있느냐는 듯 평온했다. 고속도로를 달리 강원도 원주시 오봉산자락에 있는 토지문화관(관장 김영주)으로 가는 길이었다. 토지문화관에는 요즘 세상에선 얻기 힘든 것들이 있다. 난지 공짜 숙식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가 이해경은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일갈나무 숲이 저 멀리 아득하게 보이고, 비 내리는 새벽이면 슬프디 슬픈 노루 울음소리가 들리고, 풀밭을 지나질 때면 비단끈처럼 가느다란 어여쁜 꽃땀이 고개를 바짝 치켜들고 나를 바라보곤 했다"며 토지문화관에서의 하숙생활을 추억했다. 그렇다. 숙박이나 시간이 아니라 글이 미치도록 고프거나 세상살이에 피로한 작가들이 이곳에 찾아와 눕는다. 원로작가 박경리 선생의 부문을 배고 누워 그 그윽한 훈향에 젖는다.

★

토지문화관의 설립은 1990년대 중반 원주시 난구동에 있는 박경리 선생 집이 택지 개발구역에 포함될 것이 계기가 됐다. 대하소설 《토지》 4.5부가 집필된 현장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 이때 전국의 문인들이 이래선 안 된다며 나섰다 한국토지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작가의 집을 보존하기로 했다. 이 인연을 계기로 한국토지공사는 '박경리 토지문학상'을 만들자고 했지만 박경리 선생은 수많은 문학상에 또 하나를 보태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문화관을 짓자고 했고 실행에 옮겨졌다. 작년에는 박경리 선생이 SBS추극 드라마 《토지》 저작권을 계약하고 받은 2억 원을 털어 창작실을 따로 만들었다. 행사에 방해받지 않고 보다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선생의 배려였다.

작가들의 하숙집, 작가정신 단련소의

몽





• 토지문화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현대 인류의 삶과 문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연출가 김민기 씨가 찾아낸 산책로로 들어서는 입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까지 50분가량 소요된다.



있잖�나무 숲이 저 멀리 아득하게 보이고.....미 내리는 새벽이면 슬프디 슬픈 노루 울음소리가 들리고.....꽃말을 지나친 때면 미단곧처럼 가느다란 어여쁜 꽃땀이.....고개를 마딱 치켜들고 나를 바라보곤 했다.....

기자가 토지문화관에 도착했을 때 박경리 선생은 딸 김영주 관장과 원주 시내의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 있었다. 박경리 선생은 지난해 현대문학에 <나비아 청산가자>를 연재하다 중단한 상태다. 작품에 몰두하다 그만 혈압이 더 높아져 작품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선생의 혈압은 200이 넘었다.

집필 공간인 별채에선 소설가 박범신과 조용호 그리고 연출가인 김민기 씨가 점심을 먹고 있었다. 점심이 끝나자 김민기 씨는 근처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로 수영하러 간다며 길을 나서 버렸다. 김씨는 각종 경전과 동화집을 읽으며 평생 숙원이라는 아동 청소년극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김민기 씨는 잘 기하숙생인데 여기서 체력단련장으로 통합니다. 처음엔 누구나 김민기 씨의 안내로 50분 정도 걸리는 산책 코스를 다녀오죠.”

세계일보 문화부 기자이기도 한 조용호 씨는 오래 전부터 구상해 온 장편소설을 마무리하기 위해 작년 가을 회사를 휴직하고 올해 초 이곳에 들어왔다. 박범신 씨는 아예 ‘대학에서 이렇게 정년을 맞이할 순 없다’며 10년 가까이 재직하던 명지대학교에 사표를 냈다. 생의 ‘마지막 작품’을 쓰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제법 길지만 짧게 깎은 머리칼에서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박범신 씨는 여기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말한다. 서로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사는 것이다. 어쩌다 한번 함께 산책을 갈 뿐 일체 서로에게 방해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다. 그렇다고 박경리 선생이 나몰라라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반찬으로 나오는 나물은 모두 선생이 무공해로 재배한 것들이다. 한밤중에 박경리 선생의 방에 불이 켜지곤 하는데 자다 일어나 후배들에게 먹일 반찬을 만드는 사실을 아는 하숙생은 많지 않다. 나중에 만난 김영주 관장은 글 쓰실 땐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이라며 서운한 듯 미소를 지었다.

“창작공간이 없어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곳을 찾는다면 시골 빈 집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죠. 토지문화관은 큰 나무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 자체로 작가들에게는 격려와 체적입니다. 나이가 많은 적든 작가들이라면 한 번씩 이곳에 머물다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범신 씨는 멀리 창 밖으로 보이는 앞산을 가리켰다. 치마폭처럼 넓게 퍼진 산이 바로 박경리 선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앞으로 작은 산들은 자신이고 그 옆이 조용호 씨라고 소개했다.

사람들은 토지문화관을 토지문학관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알면서도 ‘토지문학관’으로 부르곤 한다. 대하소설 <토지>와 연관시킨 탓이다. 하지만 토지문화관은 단지 <토지>를 기념하기 위한 관이 아니다. 토지문화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이 벌어진다.

창작실 지원과 더불어 현대 인류의 삶과 문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토지문화관 이름으로 <숨소리>라는 환경전문 계간지를 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이곳은 청계천복원의 산실이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가 결성되자 박경리 선생도 참여했다.

"2000년 9월 1일 토지문화관에서 청계천 복원을 주제로 첫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이후 두 차례 더 이곳에서 세미나가 열렸고 청계천 복원이 확정된 후에는 토지문화관 관장인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 위원장을 맡았죠." 김 관장은 3년째 토지문화관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엔 토지문화관 관장이 달갑지 않았다. 한국불교미술을 주제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전국을 돌며 한국 고대사에 대한 자료를 모아 책으로 낼 계획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를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다.

"계속 이 일을 맡고 계시면 병이 날 것 같았어요. 원래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어서 근심이 많은 데다 운영비도 여유롭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셨죠."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주위사람들은 설립비 30억 원 만드는 것쯤은 어렵지 않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나라 전체가 IMF 지원체제로 들어서고 말았다. 결국 재단 설립비는 박경리 선생이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7억 원이 전부가 됐다. 직접 운영을 하지 않지만 지금도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토지문화관은 적자 상태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문화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창작실 지원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토지문화관을 나오기 전 잠깐 사진을 찍기 위해 박경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느라 피곤해 잠이 든 선생님을 깨운 것이다.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거실에는 난방을 하지 않아 쌀렁했다. 하지만 선생은 날이 풀리면 밭에도 나가고 할 일은 다 한다며 건강을 묻는 기자를 안심시켰다. 선생을 만나고 나오자 조용호 기자도 산책을 간다며 길을 나섰다. 박범신 씨도 쓰던 원고를 마무리하기 위해 방문을 단았다. <출판저널>이 나올 때쯤이면 이들이 쓰던 밭은 다른 작가들의 밭이 돼 있을 수도 있다. 토지문화관을 내려오는데 쭉을 캐러 나온 할머니가 보였다. 모델이 되어 달라는 부탁에 이들이 알면 큰일난다며 거절하면서도 봄처럼 씩스스런 미소를 짓는다. 박경리 선생도 날이 따뜻해지면 후배 작가들에게 먹일 무공해 채소를 기르기 위해 다시 밭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젊은 작가들은 '바위에 앉아 먼 산을 보며 담배를 무는 선생의 모습'을 몰래 훑쳐볼 수 있을 것이다. ☞

글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 현재 토지문화관은 박경리 선생의 딸이자 김지하 씨의 아내인 김영주 씨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찾은날 박경리 선생은 김 관장과 함께 원주 시내의 병원에서 혈압을 재고 왔다.

• 창작실에 머물면서 반드시 글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글을 쓰든 하루종일 산책을 하든 작가들이 편히 머물다 갔으면 하는 게 박경리 선생의 바람이다. 소설가 박범신 씨(위)와 조용호 씨(아래).



.....창작공간이 없어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토지문화관은 큰 나무가 서 있는 곳입니다.....그 자체로 작가들에 주는 격려와 채찍입니다.....나이가 많은 적은 작가들이라면 한 번씩 이곳에 머물다 갈 필요가 있습니다.....

★

토지문화관 창작실을 다녀간 작가들을 소개합니다. \_\_\_\_\_ 창작실에

머문다고 해서 무조건 책 한 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실은 글을 쓰기

위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작가들에게 휴식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

다. 하지만 서점에서 이들의 이름과 만날 때 토지문화관과 박경리 선생을 떠올

려도 좋을 것입니다. 100일 간, 쭉과 마늘이 아니라 선생이 손수 만든 반찬과

선생이 키워온 문학정신을 먹고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_\_\_\_\_

토지문화관을 다녀간 작가들

2001년 강석경, 고영직, 고진하, 김서령, 김이정, 김영래, 김영현, 김지우, 원시림,

윤효, 이경혜, 이서인, 이성아, 이장영, 정도상, 주종환

2002년 강영진, 김영래, 김정희, 김훈동, 김환, 박완서, 박정애, 원재길, 윤신희,

윤정옥, 임동확, 임영래, 정철문, 주종환, 현준만

2003년 강수정, 강호삼, 고진하, 김남일, 김서정, 김영래, 김원보, 김혜순, 박정애,

오현중, 윤성희, 이경혜, 이성아, 이정화, 임동확, 정영, 정지형, 최자웅